



+ b e r n a r d 2022

2대리구 황금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2022. 06. 12. (다해) 제2325호

제1독서 잠언 8,22-31 **화답송**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제2독서** 로마 5,1-5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알렐루야. **복음** 요한 16,12-15 **영성체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4대리구 사무국장 | 이상화 요한 신부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요한 16,12-13)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저는 엉뚱하게도 제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들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에 저는 컴퓨터, 텔레비전, 핸드폰 등등의 기계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기기들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구동되고 움직이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컴퓨터의 원리는 이진법이고, 텔레비전은 주파수가 어찌니저찌니, 핸드폰은 CDMA 방식과 위성이 어떻게저떻고, 대충 주위들은 풍월이 전부입니다.

사실 누가 지금 그 모든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해도 감당이 안 되고 머리만 아플 것 같습니다. 그 원리는 지금 내 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현재 중요한 것은 그런 원리가 아니고 그 컴퓨터, 텔레비전, 핸드폰의 사용법입니다. 그걸 알아야 사용을 하고 편리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복음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대축일. 성부, 성자, 성령 각기 위격을 가지고 서로 구별되지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느님. 그 신비로운 하느님을 생각해 보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위일체 신비의 원리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어렵듯이 풍월로 알뿐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를 생활로 사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이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라는 공동체로 살아보려 노력하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에게 맞는 십자가를 지고 각각의 신앙생활도 살아가고, 나와 우리 사이에서 함께 추구해야 할 성령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나누는 모습들. 그런 삶의 노력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몸으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느님께서서는 그런 우리와 늘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삼위일체의 하느님과 함께 사랑하며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티로는 이방인 지역이었다. 거기서 예수는 숨어지내길 원했다. 그럼에도 한 여인이 예수를 찾는다. 더러운 영에 휩싸인 딸의 문제로 예수를 찾은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 여인을 불결하고 저주받은 존재로 여긴 터였다. 유대인 남자인 예수는 여인을 두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예수의 말은 이랬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마르 7,27) 딸에 덮씌워진 마귀를 쫓아달라고 애원하는 여인을 향해 이런 삭막한 말을 던지다니.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의 주님이라 칭송받는 예수의 말인가 의아하다 못해 정나미마저 뚝 떨어진다.

예수는 ‘자녀’라는 말을 사용했다. ‘테크논(τέκνον)’, 곧 부모와의 혈연적 관계에 있는 아이를 가리키는 단어다. 예수는 여인을 집 안, 혈연관계에서 벗어난 존재로 규정했다. ‘자녀’는 여인에게 배타적 메타포로 작동한다. 그러나 여인은 자녀를 다른 말, 곧 ‘자식’으로 받아친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마르 7,28) ‘자식’으로 번역된 ‘파이디온(παῖδιον)’은 성인에 비해 나이나 키에 있어 작은 이를 일컫는다. 부지불식간에 예수의 ‘자녀’는 빵을 받는 이가 아니라 빵을 주는 ‘자식’으로 바뀐다. 여인이 그렇게 만들었다. 말하자면 여인은 예수가 설정한 가족의 범주를 뛰어넘는다. 여인에게 빵이란 배타적 상징은 보편적 나눔의 출발점으로 기능하고야 만다.

더욱이 여인은 빵을 원한 게 아니다. 빵 부스러기를 원했다. 빵에서 부스러기로 이어지는 여인의 사유는 그 품이 넓다. 여인의 폭넓은 사유는 딸을 위한 필사적인 애잔함에 기인하는 것이리라. 제 딸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혈연으로 굳건히 잠가진 저들만의 카르텔을 무너뜨린다. 흔히들 ‘강아지’를 언급하는 여인의 모습에서 믿는 이의 겸손, 혹은 자기 낮춤을 언급하는 경

우가 잦다. ‘강아지’까지 되어서라도 예수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반드시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여인의 결의가 달랑 겸손이라는 말마디 하나로 대체될 수 있을까. 겸손이 아니라 도전이며 저항이 아닐까. ‘자녀’로 대변되는 배타적이며 선민주의적 편견의 영역을 활짝 열어젖히는 구원예의 도전이며 저항이 아닐까 말이다. 불결하고 저주받았다는 이방인 여인의 과감한 도전을 예수 앞에 애원하는 겸손된 이의 처절함으로 규정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편견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것이리라. ‘없는 이는, 아픈 이는 예수 앞에 빌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무어라고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마초적 우월주의가 사회적 약자를 더욱 아프게 하기 마련이다.

예수가 여인을 위해 무언가 해준 게 아니다. 여인이 예수의 품을 넓혔다. 예수는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 보아라. 마귀가 이미 네 딸에게서 나갔다.”(마르 7,29) ‘네가 그렇게 말하니...’, 그렇다! 여인이 그렇게 했다. ‘강아지’는 여인이 치유의 주체로,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자리다. 예수의 구원 방식은 늘 이랬다. 자신이 나서기 보다, 막히고 답답한 현실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나서서 헤쳐나가길 예수는 원했다.

어미의 마음은 자식의 아픔을 제 아픔으로, 다른 아이의 아픔을 제 새끼의 아픔으로 보듬는가 보다. 세상 모든 아이가 제 새끼인 듯 아끼고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이 빵 부스러기에 담겨서 우리에게도 전해진다. 제 새끼만 경쟁에서 승리하는 영웅을 만들고자 편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도자 층에게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은 염치를 가르친다. 함께 사는 세상에 저 혼자만 있지 않다는 염치. 그 염치의 시작은 예수가 아니라 한 여인의 용기 있는 도전에서 시작되었다. **김민호**

교황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일어난 유럽 최대 난민 이동에 사랑으로 대응합시다”

2022년 5월 30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이창욱

프란치스코 교황이 5월 30일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이하 온전한인간발전촉진부) 산하 국제가톨릭이민위원회(이하 이민위원회) 이사회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서 교황은 지난 70년 동안의 이민위원회 활동을 떠올리며 감사를 표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이동 관련 사안에 교회가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대규모 난민이동입니다.”

평화의 미래를 건설하기

교황은 또한 “세계 곳곳에 있는 수백만 명의 망명 신청자, 난민, 실향민”을 언급하며, 이들이 “환대, 보호,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같은 비상사태를 마주한 교회는 봉사하고 경청해야 하며 “평화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도록” 헌신해야 한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교회의 얼굴을 생생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명

교황은 지난 1951년 비오 12세 교황이 이주민·난민 사목을 돕기 위한 취지로 전 세계 주교회의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이민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이번 이사회를 통해 “이민위원회의 새 운영위원회를 선정하고, 새 정관을 승인하며, 향후 몇 년 동안의 운영 지침을 결정한다.”라고 설명했다. 교황은 “이주민과 난민을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



우크라이나 실향민 (AFP or licensors)

고, 통합하는” 공동 노력을 주요 지침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aedicate evangelium)에 따라 이민위원회가 온전한인간발전촉진부 산하에 속한다고 부연했다. “이민위원회의 본성과 사명이 설립 원칙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존엄

교황은 이민위원회가 “고유한 권한에 따라 항상 개별 교회에 봉사하고, 이주 사목 프로젝트의 개발과 시행, 이주 분야 사목자들의 전문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황은 이를 “내부를 향한(ad intra)” 임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외부를 향한(ad extra)” 임무는 전 세계적 인구 유동 증가 현상에 대응하며 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민위원회가 “교회의 사회 교리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을 증진하기 위해 이주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1년

사목방문을 마치고 대구로 복귀

11월 7일 화요일

나는 앞선 배를 놓쳤는데, 그 배는 내가 제주로 돌아온 바로 그날 출발했다. 걸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나는 좀 산책을 했다. 특히 제주도 사람들의 세 조상인 ‘고’(高)‘양’(良)‘부’(夫)가 나왔다는 세 개의 성스러운 굴인 ‘삼성혈’(三聖穴)에 갔었다.

대구 : 3일 - 국경일에 즈음하여 신부들이 도지사를 방문했다.

4일 - 페네 신부가 미알롱 신부와 함께 도착했다

5일 - 미알롱 신부와 클렙프테르 신부가 다시 떠났다.

11월 8일 수요일

9시에 나는 전에 나를 데려다준 바로 그 ‘미우라마루’호에 올라탔다. 2명의 동료 신부들은 10시에 작별 인사를 했다. 배는 즉시 출발했다. 기분 좋은 항해였다. 갑판 위에서 맑은 저녁은 매혹적이었고, 멀리 제주도가 보였다. 동쪽으로부터 보이는 제주도는 여러 개의 작은 화산 봉우리가 옆에 붙어 있는 커다란 화산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11월 9일 목요일

배는 저녁 6시에 부산에 도착했다. 여기서 내가 놓친 배가 바다에서 불타버렸음을 알게 되었다. 줄리앙 신부가 성사 집행을 하러 갔기 때문에 그의 석유난로 불로 음식을 만들었다. 나의 처음 사제관이었던 이 집에 다시 오게 된 사실이 나로 하여금 잠들기 전에 오랫동안 공상에 잠기게 했다. 얼마나 오랜 옛날인 것 같은지……

11월 10일 금요일

나는 새벽 6시에 소료(Soryo, ‘草梁’의 일본어식 표기)에서 기차를 타고 10시 45분에 대구에 도착했다. 페네 신부와 무세 신부가 학생들과 함께 역에 나와 있었다.

11월 17일 금요일

고티(Gotti) 주교로부터 나의 주교 성성식 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을 받았다.

11월 18일 토요일

샤르즈보프(Chargeboeuf, 宋德望) 신부의 편지에 따르면 로베르 신부는 폐렴에 걸렸다고 한다. 그는 한때 위험했었고, 현재는 그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회복되기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다.

11월 23일 목요일

여기서 20일을 지낸 페네 신부가 고베(神戸)와 홍콩으로 떠났다.

12월 6일 수요일

페네 신부가 11월 30일에 도착했다고 상하이에서 편지를 보냈다.

62. 사목적 전망 ⑦

부모는 자녀의 도덕적 발전에 언제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러한 근본적인 책임을 받아들이어 의식적이고 열정적이고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많은 사랑을 쏟으며 자녀들이 자유를 키우고, 소양을 지니며, 온전한 성장을 하고, 참다운 자립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기본 교육을 받게 하지만 자녀의 도덕적 양성은 결코 다른 이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의지를 길러 주고 좋은 습관과 선한 것에 끌리는 마음을 함양시켜 줄 책임이 있습니다. 덕행의 삶을 통하여 자유를 형성하고 강화하고 교육하면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충동적 성향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기쁨』 259-267항)



가톨릭필하모니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2022.6.12. SUN 5:00 PM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지휘 | 백운학 협연 | 조재혁(피아노) 문의 | (010)3821-5455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기후 위기에 대한 영상 시청해 보기

(예: 붉은 지구, '1.5°C 마지막 경고.....')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74호 정답

1. 말씀, 영광, 은총, 진리 2. ④ 3. 필립보 4. 6장 48절, 8장 12절

하나된 마음으로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6월 13일(월) 10:00 황성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6월 13일(월) 11:00 죽도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13일(월) 11:00 계산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6월 14일(화) 11:30 계산성당
2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13일(월) 11:00 범어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6월 16일(목) 10:00 평화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13일(월) 11:00 봉곡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6월 18일(토) 11:00 성모당

수도회 성소 | 피정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6.18(토) 14:00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문의: (010)3800-1579

예수고난회 성소 모임

일시: 6.26(일) 11:00~15:00

장소: 돈암동 수도원

문의: (010)6804-4904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살레시오회 성소 모임

일시: 상시 / 장소: 창원 젊음의 집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심재현 신부, (010)2042-8353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 단체: 언제나

산내 치유 피정: 6.21(화)~22(수)

치유기도: 매주 수 14:00~16:00

문의: (054)382-0091

성시간 묵주기도 피정

일시: 매주(목) 11:00~16:00 (미사 3시)

장소: 월막피정의집 성령봉사회관

차량: 10:00 출발 (철화명곡역 2번 출구)

문의: (010)9045-0191

제주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

날짜: 6.20~22 / 7.21~23 / 7.30~8.2

8.6~9 / 8.12~15 / 8.20~22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피정

날짜: 7.8~10 / 7.23~25 / 7.31~8.2 /

8.6~9(여름해변일정), 8.13~16

접수: (02)773-1455 / (064)796-4182

교구 외 | 기타 알림

청년 5·18 순례단 모집

주관: 광주대교구 광주인권평화재단

대상: 전국 교구의 청년 신자

기간, 행사 및 내용, 신청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ghpf.or.kr>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전례생활연구회 전례 공부 모임

일시: 6.13(월) 19:30

장소: 성요셉성당(월촌역 1번 출구)

주제: 전례봉사자2(교재 있음)

가톨릭미용인회 월모임

일시: 6.27(월) 20:00

장소: 교구청 대건관 2층 가정복음화국

대상: 가톨릭 신자인 미용인

문의: (010)8281-4040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주말

389차: 7.22(금)~24(일)

390차: 8.12(금)~1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010-7125-8849

라식, 노안렌즈, 백내장수술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재활정형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1688-7667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전 요셉, 장효선 데보라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오로)
하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가환 22년
척추·관절 및 뇌·신경 클리닉
백신경외과 의원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진전, 요통
좌골신경통, 목·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대거리 ☎ 053)628-4111

코리아알트만
39년 전통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박창수(요한) 몬시뇰
2009년 6월 14일
- 간홍모(마오로시오) 신부
1918년 6월 16일
- 서형석(프란치스코) 신부
1941년 6월 17일
- 최명화(베드로) 신부
1975년 6월 17일

교구 | 대리구 알림

6월 예비신학교 모임 안내

일시: 6.19(일) 14:00

장소: 남산동 신학교(1,2,3,5대리구
중1~고2, 4대리구 고1,2)

포항 죽도성당(4대리구 중등부)

문의: 교구 성소국, 250-3071

교구청 회계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근무기간 : 1년 4개월 (계약직)

서류: 이력서, 자소서, 교적증명서

마감: 6.22(수) 17:00 방문 또는 우편

자격: pc사용 가능자(엑셀)

제출: 교구 회계과, 250-3013

교구청 관리과 경력직 직원 채용

자격: 부동산 관련 업무 유경험자

서류: 교구 홈페이지 확인

마감: 6.28(화) 15:00 방문접수

제출: 교구 관리과, 250-3031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황현국(프란치스코)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가톨릭학술원 초청특강 전현호 신부

일시: 6.16(목) 17:30 (미사시작)

장소: 교구청 푸르실로 회관 5층 대성당

제목: 생태환경의 변화와 인권 / 강의무료

문의: 사무총장, (010)7190-1258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 안내

전입학 설명회: 7.2(토) 14:00

여름 진학캠프: 8.6(토)~7(일)

대상: 현재 초6~중2

문의: (054)338-053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천주성삼병원 보험공단검진

가족행복의 시작은 국가건강검진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신매동)

일반검진, 5대 암검진

문의: 790-0660(8:30~17:30)

남대영기념관 예성상담센터

심리적 갈등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극복

심리평가(성격검정 외) 및 심리상담

통합놀이치료(모래놀이, 미술치료)

문의: 허리나 수녀, 657-1295

바오로딸 영성프로그램

말씀테라피: 7.2(토) 8주 14:00~

마음돌봄 북클럽: 7.6(수) 5주 14:00~

말씀과 함께하는 도심속 하루피정:

7.3(일) 13:00~, 7.19(화) 13:00~

문의: 바오로딸, (010)6681-5185

바틀로센터 참신나 기도모임

일시: 6.17(금) 19:00~20:30

매달 셋째주 금요일 (변경될 수 있음)

대상: 기도하고 싶은 신자 누구나

문의: 783-9817 / (010)2693-9817

잘보는 안과
DAEGU PREMIER EYE CENTER
문홍재(요한) · 이태운(미카엘)
김인혜(보나) · 이정호
김진선 · 정현욱 · 김무현
효성병원 맞은편 **잘보는안과**
☎ 053 766 4455

가톨릭피부과의원
Catholic Dermatology Clinic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 신축건물 이전 및 레이저 전문 진료과장 초빙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신랑각시결혼
전문직·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 원 교(요안나) | 29년 경력
053)471-0707 | 010-2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SINCE 1975 **백두병원**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덕두(아오스팀), 배상근(메트로), 김원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상영(미카엘라)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T. 425-5919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 대장 내시경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김태기(안토니오)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모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 원 장 이 동 구 (마티아)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 (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천막병원 3층
청라언덕(신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윤영하 성형외과
서울대학교 병원 협력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원장 윤영현 바오로
수성구 어린이회관 맞은 편(3호선 어린이회관역)
T. 053)766-2454 / 2455